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6호 [루계 제23363호] 주제 100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여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 1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이며 공안부장인 맹건주동지와 그의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공안부장은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파 국가의 지도간부들의 친절한 인사를 정중히 전달해 드리였다.

이어 맹건주부장은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을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 드리면서 탄생일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열렬히 축하하고 그이의 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호금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파 국가의 지도간부들에게 친절한 인사를 정중히 전달해 드리였다.

하시였다.

담화석상에서 맹건주부장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무력 및 안전부문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한것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맹건주부장이 우리 나라 방문에서 원만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무력 및 안전부문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접견을 마치신 후 손님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에는 공안부장과 그 일행,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허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만찬에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친선의 정 담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

[평양 2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즐거워하는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이 14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는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 『2. 16 경축』이라는

글벌과 축전마크가 세워져 있고 공화국과 축전기발들이 개양 되어 있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형상한 미술 작품이 축전장에 모셔져 있다. 희세의 천 출위인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유의 총정파 흡모의 세계에 떠받들려 열다섯번째년들을 새기며 성대히 절치진 축전장을 아름답게 피여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전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이 시전되었다.

총포들, 주조 여의 나라 외교 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 상당체들, 외국인 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우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인동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타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역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디합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위인정승의 축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2월의 명절을 보다 뜻깊게 장식하며 위대한 당의 평도역으로 통성번영하는 불파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주동하는데 기여하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 가』 주제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수에 작품에 집약화하여 잘 반영하겠습니까?』

다른 한 수에 공은 선군 8경을 수놓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선군 1경을 형상하고 있으니 일 할수록 새 힘을 쓰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서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부강되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시실에 들어 선군 시대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엿보게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하나와 같이 생하고 정교하며 섬세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모두 돌아온 공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사랑과 자부심을 드겁게 느끼며,

우리와 만난 수에 공 리옥주

2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화 축전장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전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이 시전되었다.

총포들, 주조 여의 나라 외교 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 상당체들, 외국인 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우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인동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타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역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디합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위인정승의 축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2월의 명절을 보다 뜻깊게 장식하며 위대한 당의 평도역으로 통성번영하는 불파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주동하는데 기여하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 가』 주제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수에 작품에 집약화하여 잘 반영하겠습니까?』

다른 한 수에 공은 선군 8경을 수놓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선군 1경을 형상하고 있으니 일 할수록 새 힘을 쓰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서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부강되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시실에 들어 선군 시대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엿보게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하나와 같이 생하고 정교하며 섬세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모두 돌아온 공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사랑과 자부심을 드겁게 느끼며,

우리와 만난 수에 공 리옥주

2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화 축전장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전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이 시전되었다.

총포들, 주조 여의 나라 외교 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 상당체들, 외국인 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우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인동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타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역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디합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위인정승의 축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2월의 명절을 보다 뜻깊게 장식하며 위대한 당의 평도역으로 통성번영하는 불파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주동하는데 기여하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 가』 주제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수에 작품에 집약화하여 잘 반영하겠습니까?』

다른 한 수에 공은 선군 8경을 수놓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선군 1경을 형상하고 있으니 일 할수록 새 힘을 쓰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서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부강되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시실에 들어 선군 시대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엿보게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하나와 같이 생하고 정교하며 섬세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모두 돌아온 공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사랑과 자부심을 드겁게 느끼며,

우리와 만난 수에 공 리옥주

2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화 축전장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전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이 시전되었다.

총포들, 주조 여의 나라 외교 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 상당체들, 외국인 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우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인동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타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역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디합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위인정승의 축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2월의 명절을 보다 뜻깊게 장식하며 위대한 당의 평도역으로 통성번영하는 불파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주동는데 기여하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 가』 주제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수에 작품에 집약화하여 잘 반영하겠습니까?』

다른 한 수에 공은 선군 8경을 수놓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선군 1경을 형상하고 있으니 일 할수록 새 힘을 쓰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서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부강되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시실에 들어 선군 시대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엿보게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하나와 같이 생하고 정교하며 섬세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모두 돌아온 공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사랑과 자부심을 드겁게 느끼며,

우리와 만난 수에 공 리옥주

2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화 축전장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전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이 시전되었다.

총포들, 주조 여의 나라 외교 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 상당체들, 외국인 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우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인동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타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역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디합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위인정승의 축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2월의 명절을 보다 뜻깊게 장식하며 위대한 당의 평도역으로 통성번영하는 불파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주동는데 기여하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 가』 주제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수에 작품에 집약화하여 잘 반영하겠습니까?』

다른 한 수에 공은 선군 8경을 수놓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선군 1경을 형상하고 있으니 일 할수록 새 힘을 쓰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서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부강되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시실에 들어 선군 시대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엿보게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하나와 같이 생하고 정교하며 섬세하였다.

수에 작품들이 모두 돌아온 공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사랑과 자부심을 드겁게 느끼며,

우리와 만난 수에 공 리옥주

2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화 축전장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전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이 시전되었다.

총포들, 주조 여의 나라 외교 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 상당체들, 외국인 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우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인동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타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역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디합없는 경모의

뜻 깊은 2월의 명절은 인류 공동의 대경사

뜻 깊은 2월의 명절이 다
가을수록 독창적인 사상인 경에 하는
활동과 정력적인 혁명실천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주도해 나가는 천출위인이 시며
아오르고 있다.

세기의 위인을 모신 만민의 영광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 앞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며 조선혁명파 세계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계 전보적인人们은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아 드리고 있다.

올해 2월의 명절경축준비 사업은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다.

지난해 2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과 2012년 2월 16경축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을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주체사상 연구교류사업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국제준비위원회는 2011년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 활동과 주체사상을 연구보급, 선전하며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성과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파키스탄, 스웨덴, 인도, 미국, 빙글레이즈, 체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민주공화국, 에질트, 에티오피아, 네이제리아,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펼쳐온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주체사상 연구교류활동을 적극화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에 2011년 2월 16경축준비위원회, 2011년 2월 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결출한 명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토와 칭송의 열기가 세계 5대륙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기의 위인을 모신 만민의 영광

회 결성식이 진행되었으며로

써야 샌크드페테르부르크에서 2011년 2월 16경축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 16경축 메히코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현연설에서 2010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한없이 높이 추대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된 뜻깊은 해였다고 하면서 2011년 2월의 명절을 통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공예품전람회, 영

화감상회가, 도미니카에서는

제스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

조와 백두산체스포조선원선협

회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

선백두산》 등 여러 나라 신

문,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이

아시도서관과 로씨야 연예번강

을라지보스코시 수하노브박

물관, 나이제리아 런방수도평

토성 예술 및 문화리사회청사

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들이 진행되

고 있다.

2. 16경축행사들이 전국

적, 지역성격을 띠고 세계적 판도에서 광범위 진행되고 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국제우호련락회와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의 공

동주최로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경제모임과 연회가, 스웨덴에서는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로씨야에서는

제3주제주체사상연구소

에서는 김정일동지께서 21세기

의 위대한 태양이다.

김보자의 에프엔 90. 5방

송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정일령도자께서 만민의 축복

을 받으시는 날보다도 온 나라

인민이 령도자의 축복에 코나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날로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시대와 역사, 인류앞에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2. 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동지의 탄생에 즈음하

여 진보적인 유산은 끝없는 환희

의 경계에 넘쳐 그에 대한 태양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조선인민을 향상시

케 조선인민으로 향상시